

## 한국어판 서문

본서의 한국어판 간행에 즈음해서 내 마음속에는 큰 기쁨과 강한 긴장감 내지 두려움 같은 감각이 뒤섞여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과 한국은 내셔널리즘이라는 난제를 둘러싸고 복잡하고 불행한 관계에 있으며, 상호이해와 내실 있는 대화는 아직 쉽지 않다. 이 책은 그러한 대화를 조금이라도 진전시키고자 하는 바람으로 집필되었으나, 이것이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는 한국 독자들의 엄격한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불충분한 시도가기는 하지만 그러한 방향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저자로서 그 이상의 기쁨을 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갑자기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 서문을 시작했으나, 사실 이 책이 그러한 문제를 중심 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능한 한 폭넓은 시야에서 다양한 논쟁적 문제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차분하게 생각해보기 위한 소재를 제공하는 것이 이 책의 주요한 목표이다. 해석이 갈리는 여러 개념들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일종의 교통신리를

시도하는 것, 또는 근현대 세계사의 흐름을 되짚어 대략적인 역사적 조감도를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책의 주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방대한 양의 논의가 축적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에릭 홉스봄, 어네스트 겔너, 베네딕트 앤더슨, 앤서니 스미스와 같은 이들의 저작은 지금도 일종의 고전이 되어 있다. 이렇듯 많은 관련 저작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저자의 희망적 관측이다.

첫째, 방금 거론한 일련의 ‘고전’들 이후에 형성된 몇몇 새로운 논의에 입각하여 고전적 전례의 부분적 수정을 시도하고, 현대의 이론적 상황에 어울리는 내셔널리즘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그러한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냉전종언 후의 새로운 국제정세 전개에 입각하여 현대적 상황에 관한 시론을 제기하였다. 셋째, 이들 ‘고전’은 모두 구미 연구자들에 의해 저술된 만큼 동아시아가 상대적으로 불충분하게 다루어졌다는 점을 보완하여 동아시아 국가의 독자들에게 가까운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나의 본래 전공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내셔널리즘론에서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러시아·구소련 여러 지역을 논의에 포함함으로써 최대한 시야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 목표는 “주관적으로 노력했다”는 데에 머무르며 실제로는 충분히 달성되지 못했다는 점은 자각하고 있다. 많은 한계나 결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책이지만, 다양한 독자들의 건설적 비평을

앞서 삼아 앞으로 더 나아가고자 한다.

이 책은 적은 분량으로 특정 주제에 관해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폭넓은 사항을 개관한 책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입문서 혹은 계몽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저자로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새로운 문제제기를 시도하고,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전문연구자도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며 이 책을 집필하였다. 광범위한 일반 독자와 전문연구자 모두를 독자로 상정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도 다소 어중간한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각 유형의 독자들에게 약간의나마 지적 자극을 제공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이다.

이 책의 일본어판은 2008년에 간행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의 시태에 대해서는 일결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을 포함하는 것은 전면적인 개정을 필요로 하는 큰 작업이 되기 때문에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변명 같지만, 이 책은 현상분석을 주요 과제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거시적으로 현대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호스를 담은 작품이며, 이는 여전히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닐까 하고 기대해본다.

끝으로 한국 독자들의 솔직한 비평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2012년 3월

시오카와 노부아키(塩川伸明)